중진공, 인도 중소기업공사와 지원 '맞손'

한-인도 스타트업 포럼

벤처기업간 무역거래·기술교류 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도 중소기업공사와 손을 잡고 양국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기술교류 등 협력 강화에 나섰다.

중진공은 대통령 인도 순방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전날 인도 중소기업공사(NSIC)를 방문해 '한-인도 스타트업 포럼'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도 중소기업공사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양국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성공사례, 육성정책 발표와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매칭상담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인도는 구매력 평가 기준 글로벌 3대 경제 대국으로 현 정부 신 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꼽힌다.

중진공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무역거래와 기술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과 나스(Ravindrs Nath) 인도 중소기업공사 사장은 양국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양국 중소벤처기업 역량개발 ▲지원제도 체계 구축 ▲비즈니스 사절단 교류 ▲세미나 공동개최 등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인도 기술교류센터(IKTEC)도 열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오른쪽)이 나스 인도 중소기업공사 사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센터는 양국의 기술 이전, 합작투자, 설비이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과 인도 중소기업공사는 이번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중진공 뉴델리 수출인큐베이터를 협력창구로 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인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교류 분야에서 성과를 내 많은 글로벌 히든챔피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진공은 전 세계 45개국 79개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농진청, 창원서 '2018 농업기술박람회'

18일부터 창원컨벤션센터서 개최

국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숨은 매력을 알리고, 농업인에게는 미래 농업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경상남도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18 농업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의 혁신, 그 희망을 보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 농업인과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청년 농업관의 경우, 일자리 소개와 창업 교육 운영, 지원, 성공 사례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농업생명과학교실을 통해 참깨 인공교배, 곤충과 물벼룩 관찰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생명과학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농업인네트워크 멘토-멘티 소통 컨퍼런스', '청년 농업인 포럼', '도전! 농업 골든벨' 등 농업 유망주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스마트농업관, 첨단생명공학관에서는 농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하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첨단 농업 기술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살펴볼 수 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을 위한 치유농업체험관, 건강·기능 농식품관, 농촌자원체험관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먹으면서 입이 즐겁고 땀 흘리며 몸도 가벼워지는 체험 시간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농업기술박람회 홈페이지나 운영사무국(☎063-238-0085, 00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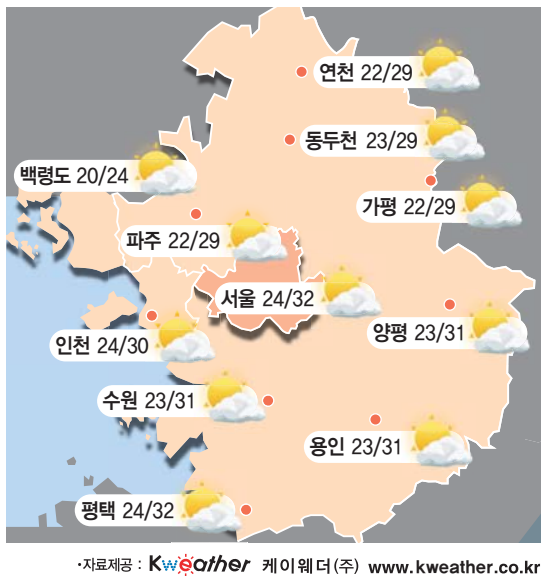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20 | 해짐 / 19:55

7월 12일 음력 : 5월 29일

수도권 날씨 32~2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동차 단종부품 3D 프린터로 제작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 2·7·8호선에 시범 운영
제작 기간 단축·가격 부담 감소 효과

단종으로 수급이 어려운 전동차 부품이 '3D 프린터'로 제작된다.

서울교통공사는 3D 프린터로 만든 부품을 서울지하철 2·7·8호선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3D 프린터로 만든 부품을 전동차에서 사용하는 것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이번에 제작된 부품은 단종된 '전동차 종합제어장치 가이드레일', '전동차 차축 개스킷'과 대량 주문만 가능해 소량 제작이 어려운 '객실 손잡이'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객실 손잡이. /서울교통공사

전동차의 수명은 약 25~30년인데 부품은 그 전에 단종되기도 한다. 이에 공사는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초로 3D 프린터로 만든 부품을 전동차에 사용했다.

전동차 종합제어장치 가이드레일과 전동차 차축 개스킷은 단종된 제품으로 주문 제작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공사는 이들 부품을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 기간을 30~40% 단축하고, 제작 비용도 줄였다. 가이드레일의 경우 10개를 주문하면 기존에는 250만원이 들었으나 3D 프린터로 제작하면서 30만원으로 줄었다.

공사는 전동차 부품과 객실 손잡이 제작을 시작으로 기술력을 축적, 3D 프린팅 기술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첨단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을 전동차 유지 보수에 적극 활용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기술력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여름철 관광지 '해수욕장'·맛집 '냉면집' 인기

한국관광공사-SKT

T맵 검색량 기준 관광지·맛집 10선

여름에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는 해수욕장, 맛집은 삼계탕집과 냉면 등 면류 특화 음식점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와 SK텔레콤은 공동으로 스마트폰 기반 내비게이션 'T맵(티맵)'의 지난 2015~2017년 최근 3년간 검색량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별 여름철(7~8월) '인기 관광지와 맛집 10선'을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SK텔레콤 T맵 사용자들의 최종목적지 검색량 및 증가율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단, 해당 지점의 실제 방문자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름철 야외 자연 관광지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해수욕장'이었다. 많이 찾은 전국 해수욕장 50곳 중 낙산해변, 협재해변 등 강원도 및 제주도 내 해수욕장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광명동굴, 재인폭포 등 '폭포·계곡·동굴' 및 동막해수욕장캠핑장, 석모도자연휴양림 등 '캠프장/자연휴양림'의 방문 건수도 2015년 대비 2017년에는 각각 58.6%, 48.1% 늘어났다. 캐리비안베이, 김해롯데워터파크와 같은 실내 '수영장·놀이시설'도 10.7% 증가하는 등 인기가 높았다.

과천과학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가까운 '박물관·기념관·미술관·과학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한카드 판스퀘어 등 '전시장·공연장'과 같은 실내문화시설 방문 건수도 2015년 대비 각각 169.3%, 186.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거리, 당일치기 등의 '여행의 일상화(staycation)'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여행예능프로그램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골 콘텐츠인 '맛집' 도 이번 T맵 데이터에서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계탕 및 냉면, 밀면, 막국수와 같은 면류 등 여름철 특화 음식점들이 지역별로 인기 목적지로 나타났다.

공사가 방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서 한국 방문시 주 고려 요인으로 '음식·미식탐방(44.5%→52.8%)'을, 또한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식도락 관광(16.5%→19.6%)'이라 응답한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음식은 국내관광은 물론 외국인들의 한국관광을 활성화 하는데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의 방문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각 지자체별 인기관광지들이 올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여름 휴가는 국내 지방 명소를 찾아 그 지역 대표 음식을 맛보며 더위를 나는 것이 지방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 강원 고성군 송지호해변. /한국관광공사

소진공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공모전'

내달 10일까지 국·내외 창업 아이디어
창업 생존율·자생력 높이기 위해 기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월 10일까지 '2018년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창업 생존율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자본으로도 창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소상공인 분야의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나 현재 국내에서 사업화는 미미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창업 아이디어다.

기간 내 응모된 아이디어는 아이템 참신성, 소상공인 창업적합성, 사업모델 전파 및 사업모델 가치창출을 통한 소상공인 파급효과 등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해 ▲대상 1명(5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300만원) ▲우수상 3명(각 200만원) 등 20명에게 총 2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 가운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 3명에게는 '해외 신사업아이디어 탐방' 기회도 제공한다.

소진공은 설립 이후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사업 분야로의 소상공인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업종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해왔다.

김흥빈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좋은 창업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돼 소상공인들이 시장 경쟁력을 갖고 건강한 창업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도로공사

오늘 경부-용인서울선 개통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일 11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양재IC와 판교IC 사이에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이하 금토분기점)를 개통한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7월 경수고속도로(주)와 실시 협약을 체결한 뒤 2016년 3월부터 금토분기점 공사를 진행해 왔다. 12일엔 경부선 부산방향에서 용인서울선 흥덕방향으로의 연결로만 우선 개통한다. 용인서울선 서울방향에서 경부선 서울방향으로의 연결로는 공사착수 시기의 차이로 올해 말 개통한다. 용인서울선 흥덕방향에서 경부선 부산방향이나 서울방향은 별도 연결로가 없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금토분기점 개통으로 분당, 수지, 광교 및 흥덕 신도시 주민들의 도로 선택폭이 늘어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